

2023학년도 중어중문학과 동계 해외 대만 전공캠프 후기 보고서

이름	이지윤	학번	2021310216
내용	<p>언어를 배우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본인은 '실제로 해당 언어를 듣고, 입으로 뱉어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본 학과 수업 중, 중국어로만 진행되는 수업을 들을 때 실력이 가장 크게 상승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화 실력을 향상시킬 기회가 적은 것이 학과 생활 중에서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있었다.</p> <p>이러한 아쉬움을 해소시켜준 것이 바로 동계 해외 전공캠프였다. 중국어를 일상에서 최대한 많이 사용해보고 싶다는 목표 하나로 신청한 캠프는, 목표 달성은 물론이고, 중국어를 더 꾸준히 배우고자 하는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p> <p>2주 동안 하루에 최소 4시간 최대 6시간 정도 중국어 공부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중국어 어휘가 부쩍 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번체를 읽는 법도 동시에 익힐 수 있어, 여러모로 유익한 시간이었다. 특히 실천대학교 선생님들이 중국어 커리큘럼을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기소개, 대화 등으로 구성해주었기 때문에 공부한 내용을 실제 현지인들에게 써볼 수도 있었다. 이러한 연계 학습 덕분에 공부한 내용이 기억에 더욱 잘 남았다고 생각한다.</p> <p>특히 회화 시간이 따로 나누어져 있는데, 빠른 회화를 듣고, 다양한 질문에 대답하고, 중국어로 발표도 해보며 전체적인 실력을 빠르게 높일 수 있었다.</p> <p>학교에서 마련해준 특별 활동으로는 먼저 어반교류 시간이 있었다. 실천대학교 대학생들과 중국어로 대화하는 시간이었는데, 한국에 대한 소개도 하고, 대만 맛집도 공유받으며 개인적으로 정말 즐거웠던 시간이었다.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과 중국어로 대화하며, 실제 많이 쓰는 중국어 표현을 익힐 수 있어서 유익했던 것 같다.</p> <p>두 번째 활동은 문화 수업이다. 대만 전통 문화를 실제로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p> <p>마지막으로 합동 소풍도 갔다. 함께 온 타 학교와 함께 예류 지질 공원, 지우펀, 스펀을 갔다. 비교적 먼 곳에 위치한 관광지라 방문하기 힘든데, 학교에서 함께 가서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었다.</p> <p>알찬 수업과 함께, 같이 간 학과 사람들과 매일 점심을 먹고, 수업이 끝난 후 대만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소중한 인연도 만들 수 있었다. 이번 방문 전에도 와본 대만이었지만, 새로운 인연과 함께 본 대만은 더욱 아름답고, 더욱 친절한 곳이었다.</p> <p>전공캠프는 본인에게 언어에 대한 즐거움을 알려주었으며, 새로운 인연을 선물해주었고, 함께하는 행복함을 배우게 해주었다. 짧다면 짧은 기간 동안 변화점을 만들고 싶다면 꼭 추천해주고 싶은 활동이다.</p>		

활동 사진

